

《자유연계 Ⅲ 09:30~10:10》

견관절 불안정증에서 온도 조절 수축기를 이용한 치료 - 예비 보고 -

김승기 · 장 건 · 장 한

가톨릭의대 부속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견관절 불안정성의 치료에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절경적 방법보다 재발율이 높다는 보고 뿐만 아니라 관절의 용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4-5년간 관절의 용적을 줄이기 위해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견관절 불안정성 환자에서 단극성 온도조절 소작기(Unipolar electrothermal device)를 이용한 관절피막 수축술(Capsular shrinkage)후 그 결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견관절 불안정성에 대해 관절피막 수축술을 시행하였던 40명의 환자중 최소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2명 25견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26.4세였고 남자 17명 19견관절, 여자 5명 6견관절 이었다. 불안정성의 방향은 전방불안정성이 12례, 후방불안정성이 1례, 다방향불안정성이 12례였다. 15례에서 suture-anchor를 이용한 인대복원술이 필요하였고 나머지 10례는 인대부착부에 이상이 없었던 환자로 소작기를 이용한 수축술식만 시행하였다. 술후 객관적 평가는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평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요약

비록 단기 추시이긴 하나 전례의 견관절이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에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한 환자가 술후 6개월까지 강직을 보였으나 최종 추시에서 호전되었다.

저자들은 불안정성 환자에 대한 관절경하 수축술이 다른 술식과 병용 또는 단독으로 사용할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